



제주문화가 이슈&현장 예술로 밥먹영 살아보게 마섬 (8)

# 창작활동 안끊기게 제주형 창작디딤돌 사업을

바즈라사회적협동조합서 후원금 모아 예술가 지원 6월 기준 33명에 기부금 창작준비금 방식의 지원 코로나 속 장기 처방 필요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자격도 안되는 무용가입입니다. 우리 같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예술가가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른 지원도 있기를.” 제주 바즈라사회적협동조합이 벌이고 있는 ‘너와 나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한 어느 예술가가 남긴 메모 중 일부다. 코로나19 여파로 아무런 활동도 못하고 수개월째 버티고 있는 예술가들은 더 있다. 지역 문화예술계에도 긴급 재난 지원금 처방이 시급하다. ▶별도 자격 묻지 않고 예술가면 지원=코로나19 사태 속에 문화예술

지원을 위해 공적 영역에서 절차를 따지고 자격을 물으며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문화예술법인 바즈라사회적협동조합이 제주 예술가 구하기에 뛰어 들었다. 이들은 SNS 홍보를 통해 ‘너와 나 함께’ 프로젝트를 펼쳐며 코로나19 시국에 베풀고픈 내물린 도내 예술가들의 손을 잡아주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실시일만 후원금을 모아 최대 50만원까지 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비로 쓸 수 있는 기부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16일부터 7월 4일까지 형편에 따라 1만원에서 100만원까지 84명이 낸 후원금은 모두 합쳐 1500만원이 넘었고 이는 6월 기준으로 33명의 예술가들에게 돌아갔다. 바즈라사회적협동조합은 기부금을 지원하면서 별도의 자격 조건을 내걸지 않았다. 제주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이어온 개인이나 단체 중에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

하는 이들은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일정 규모의 후원금이 모이면 선착순으로 지급해왔다. ▶“부디 문화예술계 무너지지 않기를”=이 프로젝트는 피아니스트이자 기획자인 이상임 이사장의 경험이 작용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 와중에 예술인 용자를 신청하려다 예술활동증명 추천인을 내세워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워 포기하고 그 대신 지인에게 그만큼 비용을 빌렸던 일이 있다. 유례없는 상황 속에 다른 예술인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그 역시 기부를 실천하며 후원자와 예술가를 이어주는 일에 나섰다. 실제 이곳에서 예술인들의 기부금 신청을 받아보니 공연 제작비가 없거나 실 무대가 없다는 사연이 이어졌다. 기부금을 받은 그들은 저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부디 문화예술계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다. 제주에서 문화예술 분야 지원금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200만~300만원을 지원받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가 제출하고 정산해야 할 서류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차라리 지원금을 안받는 게 낫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지원’과 같은 제주형 ‘창작디딤돌’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활동 소득이 낮은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해 이 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현업 예술인 중에서 1만2000명 이상을 선정해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한다. 제주에서도 그보다 지원액이 낮더라도 예술인들이 경제적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바즈라사회적협동조합이 현재진행중인 프로젝트를 통해 제주 예술인들이 처한 현실이 드러났지 않은가. 전선희기자



이승수의 '검은 사슴'.

## 자연의 길로 향하는 아시아 미술

아시아 대표작가 교류전 한·중·인도와 스리랑카 세계자연유산센터 전시

아시아 현대미술의 오늘을 살필 수 있는 전시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고순향)가 주최하고 아시아예술경영협회(대표 박철희)가 주관하는 제4회 제주, 아시아를 그리다' 전시다. '2020 아시아 대표작가 교류전'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는 한국, 중국, 인도만이 아니라 스리랑카 작가까지 참여한다. 이번 전시 주제는 '도법자연(道法自然) 지수화풍(地水火風)'으로 정해졌다. 코로나19 시국 속에 시각예술을 통해 21세기를 살아가는 인간과 자연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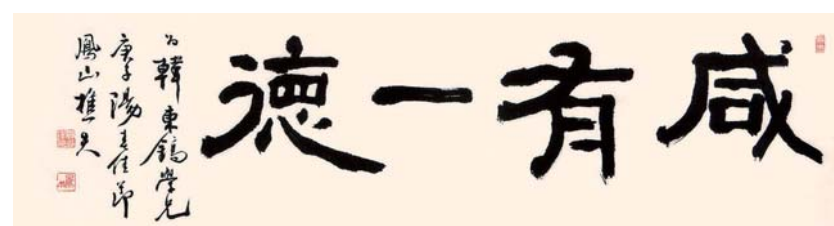
하는 자리로 꾸민다. 중국 작가로는 현대미술의 냉소적 사실주의를 보여주는 저우춘야, 사천미술대학 총장 팡마오롄, 고독한 인간의 내면을 통해 인류에 대한 고찰을 이야기하는 귀웨이, 현대사회의 모순을 표현하는 저지문화예술인 마을 입주작가 평정지에, 중국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조망하는 사진가 왕칭송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인도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화해를 담은 자가나스 판다, 인도의 사회적 편견과 계급적 태도를 풍자하는 지지스카리아 작가가 이름을 올렸다. 스리랑카에서는 자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킹슬레이 구니틸라케 콜롬보대학교 교수가 출품에 나선다. 국내에선 한국적 팝 아트를 선보이는 강형구를 비롯 김동유, 흥경택, 양태근, 고광표 작가가 작품을 준비했다. 제주 출신 이승수, 강태환, 김선일 등 청년작가들도 교류전에 함께한다. 전선희기자

## 커피향 배인 공간에 목향 날리네

고상구 서예전 20일까지

제주소목회를 지도하고 있는 고상구 서예가가 커피향이 배인 공간에서 서예전을 열고 있다. 지난 1일부터 갤러리카페 지오(제주시 도남로 3길 6)에서 펼쳐지고 있는 개인전이다. 고상구 서예가는 40여 년 전 서귀포 서예가 소암 현중화 선생 문하에

입회해 붓을 잡기 시작했다. 제주서예민화 제주작가상, 한국서도협회 제주지회 초대작가 백파상 수상 경력이 있다. 수십년에 걸친 탐과 열정을 담은 이 전시에 고 서예가는 '시작'이란 이름을 달았다. 추사 제주 유배 180주년을 기억하며 쓴 '歲寒然後知松柏(세한연후 지송백)', '올바른



고상구의 '咸一德(함유일덕)'.

도를 깨우쳐 어느 경우에도 결코 흔들림이 없이 확고한 덕을 갖고 있음'을 뜻하는 '咸一德(함유일덕)', 눈어 공야정에 있는 구절인 '安信懷

之(안신회지)' 등이 놓였다. 전시는 이달 20일까지 계속된다. 문의 064)724-5201.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문화가 쫓지

18개 동네책방 예술제

2020 제주시 책방예술제 '책섬[섬:]'이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7-8월 동네책방 18곳에서 펼쳐진다. 책방예술제는 북토크를 시작으로 >동네책방 클래식 콘서트, 낭독 공연(카페동경엔책방) >그림책 만들고 인형놀이 하는 '김리라 작가 전시회(그림책방&카페노란우산) >슬기로운 우도해녀 생활(밤수지맨드라미) >한뼘씩 읽기(한뼘책방) 등이 선보인다.

2박3일 제주예술캠프

인스피어가 주최·주관하는 제주예술캠프가 이달 10-12일 '춤추는 섬: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를 주제로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서 열린다. 참가자들은 2박 3일간 예술가 12명의 가이드로 안무가가 돼 춤추고 유리 조각으로 썬개쳐를 만들어 전시회를 갖고 타악 공연과 요가·명상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린다. 참가비용 무료. 인스피어 홈페이지(www.insphere.kr) 참고. 문의 787-7898.

박물관 무료 시민 아카데미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관장 노정래)이 지난 4일부터 '박물관 시민 아카데미'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2015년부터 가동된 프로그램의 올해 주제는 '제주 음식문화', '제주 설화', '제주어', '제주의 인물' 등 4개로 꾸러졌다. 교육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박물관 사회교육실에서 10회에 걸쳐 이어진다. 회당 20명 모집. 자세한 내용은 박물관 홈페이지 참고.

마을문화공간 네트워킹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가 '지역문화창작자 문화공간 뉴딜: 마을문화공간 네트워킹 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공간을 모집하고 있다. 서귀포 지역 마을 복지회관, 문화의 집, 동네책방, 갤러리카페 등을 대상으로 7월 10일까지 접수가 진행된다. 주제·분류별 워크숍, 문화예술 사회교육실에서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단체나 개인당 1건만 지원 가능하다. 문의 064)767-9509.

## 제주 성악 인재 발굴 프로젝트 시동

서귀포에당 10월 기획공연 8월10~14일 음원파일 접수

서귀포예술의전당이 성악 인재 발굴 프로젝트 '문화를 꿈꾸며, 삶을 노래하며'에 참가할 도내 아마추어 성악가들을 찾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성악 비전공자로 뛰어난 성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역량을 발휘할 무대가 없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게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클래식 저변 확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선정된 참가자들은 10

월 30일과 31일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펼쳐지는 '문화를 꿈꾸며 삶을 노래하며' 기획공연 무대의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된다. 참여 인원은 초등부·청소년부·대학부·일반부 등 4개 분야 총 40명이다. 출연자 선정은 8월 10-14일 심사용 음원파일(자유곡 1곡)을 접수해 성악 전문 심사위원 3인이 가창력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참가곡은 가곡과 아리아에 한한다. 단 초등부는 동요를 불러도 된다. 응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예술의전당 홈페이지 참고. 문의 760-3365. 전선희기자

# 취 임

## 농협중앙회 이사

농협중앙회 이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농업과 농협의 발전을 위해 원대한 포부 펼치시고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 창 철**  
(대정농협 조합장)

### 대정농협 직원일동